

해안가의 죽음의 함정
"테트라포드(Tetrapod)"
를 아시나요?



많이 본 건데?



삼발이 라고도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파도로 부터 방파제를 막아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입니다.



전국 200여 곳의 해안에 설치돼 있는데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안의 테트라포드 에서의 안전사고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 간 총 74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건가요?"



그건 "테트라포드" 사이사이 틈에 물고기가 많다는 이야기에 강태공들의 발길을 사로 잡기 때문입니다.

테트라포드 만한 포인트도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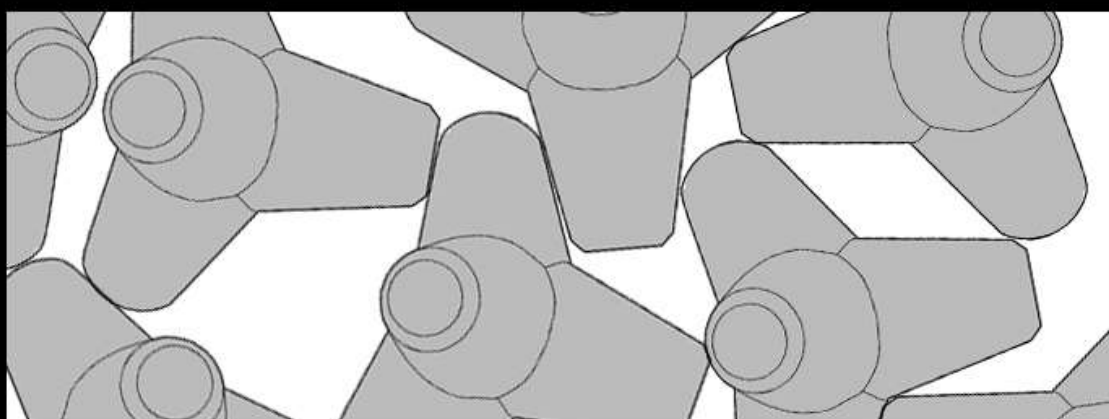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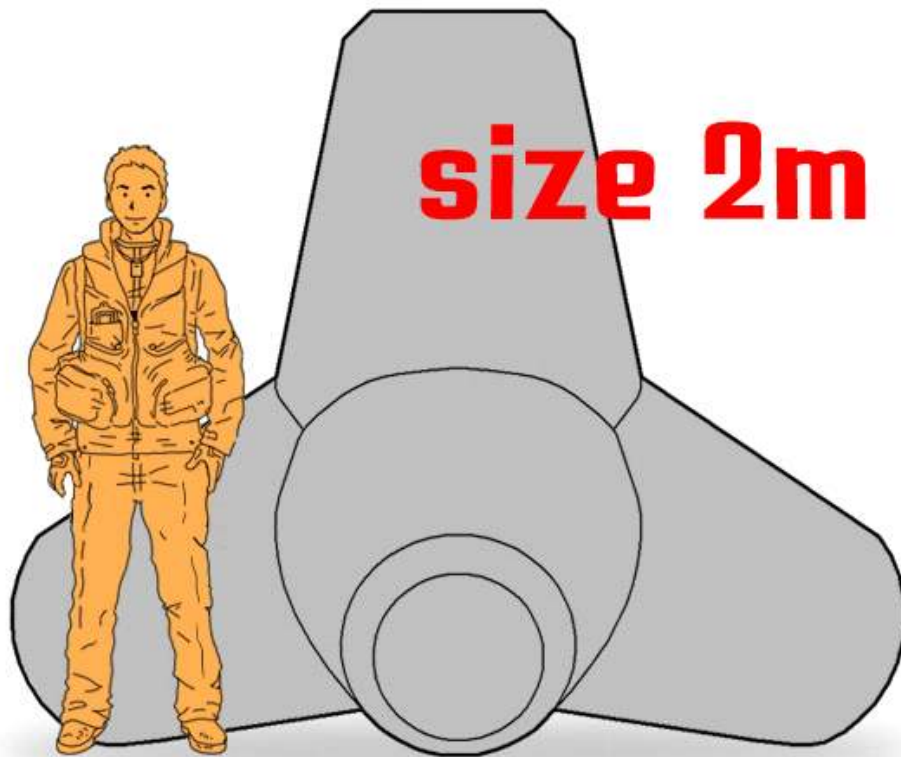
**그럼
테트라포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 볼까요?**

**"자네는 낙시를 헐 찌에 절대
그 곳에 가지 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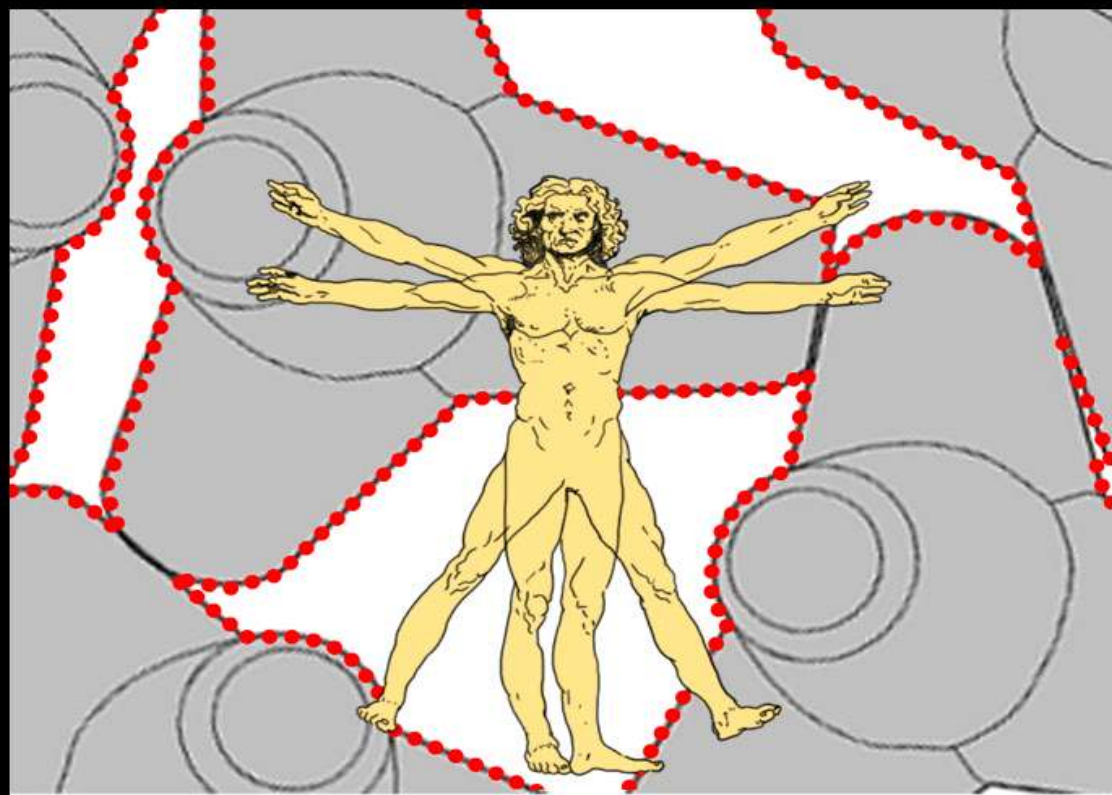


테트라포드는 작은 크기가 2미터에서 큰 것은 4미터 정도 까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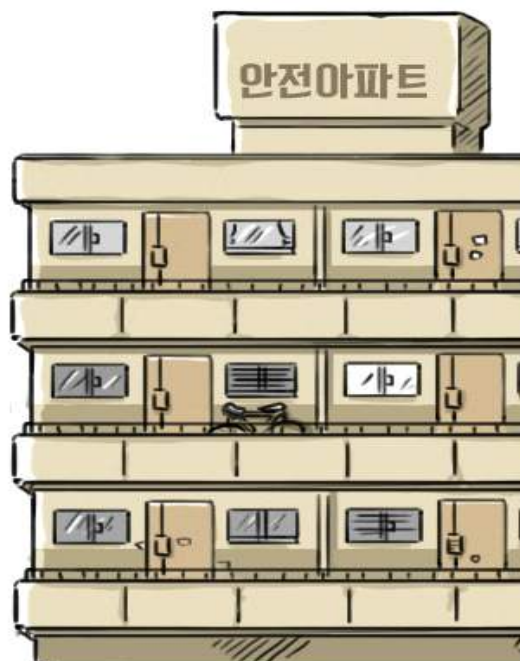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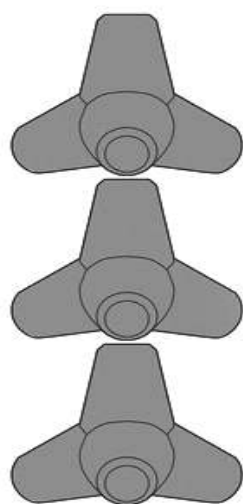
보통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죠.



이렇게 촘촘히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사이사이의 공간이 넓고 크기 만큼이나
깊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쌓아있을 경우 높이가 아파트 2층 높이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트라이포드 사이를 뛰어 다니거나

음주 후 이색적인 풍경에 취해 트라이포드 위에서
셀카를 찍다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빈발 합니다.



동행이 없을 경우 추락 시 발견이 어려울
뿐더러 낙하 시 구조물에 붙은 패류 등으로
심한 찰과상을 입을 수 있으며 뇌진탕의
위험도 있습니다.

구조가 늦을 경우 바닷물에 잠겨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특히 어린 아이나 여성,
음주 후 에는 테트라 포드 위를 걸어 다니는 행동
은 **절대 삼가** 해야 합니다.



"테트라포드"

여러분은

**아직도 테트라포드가 셀카 찍기 좋은
이색적인 풍경,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낙시 포인트로만 보이시나요?**

